

순천만국가정원, 차별화된 콘텐츠로 정원의 새 막 열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독보적인 '정원문화도시' 발돋움

4월 1일, 드디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 공개됐다. 확 달라진 콘텐츠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천만에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하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인구 30만도 되지 않는 남해안 중소도시 순천이 일궈낸 성공은 전국 510여 개 기관·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위원회로부터 226개 자치단체를 살린 도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제시하는 모범도시라는 평가를 불러왔다.

그런 순천시가 이번에는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을 더했다.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를 입히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오직 순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로 꽂 채웠다

차별화된 콘텐츠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 주목할 만하고(Remarkable), 탁월하며(Excellent), 기존 것과 차이가 있다(Different)는

집이 바로 그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품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가장 먼저 노후화된 꿈의다리가 '스페이스 브릿지'로 재탄생했다. 외관은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해 찾아온 호기심 많은 우주인의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을 연출해 관람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내부는 우주, 물, 원시의 순천만을 테마로 한 미디어 연출을 가미해 175m 구간을 지루할 틈 없는 풍부한 콘텐츠로 꽂 채웠다.

남문 앞 유휴공간과 배수로를 정비한 '스페이스 허브' 역시 새로운 관람 포인트다. 약 5000여 평에 달하는 공간에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는 미스터리 서클을 연상시키는 화체 연출과 175m에 달하는 활주로와 같은 공간 구성으로 오천 그린광장에 준하는 핵심 콘텐츠로 급부상했다.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인근에는 EBS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쿱'의 캐릭터를 더했다. 기념품 하우스를 리뉴얼한 '두다하우스' 역시 새로운 체험 포인트다.

◇보는 정원을 넘어 이제는 즐기는 정원으로,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 도입

시는 다채로운 체험 요소 도입으로 '보는 정원'이 '즐기는 정원'으로 바뀌는 새로운 정원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가장 먼저 정원박람회 기간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크릿가든을 4D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시크릿 어드벤처'로 리뉴얼했다.

우주인 '우드베어'의 스텝 넘치는 여행을 테마로 한 시크릿 어드벤처는 4D 입체영상관 이외에도 인터랙티브 전시, 프로젝션 맵핑 등 최첨단 기술 도입으로 다이나믹한 오감 체험을 제공한다.

가든스테이 또한 일과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정원 웨케이션'으로 재탄생했다.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웨케이션은 기존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최초의 사례로, 사전예약자가 100여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하천 수상 페레이드 역시 국내 최초로 시도된다. 주간과 야간에 1회씩 진행되는 페레이드는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

국가정원의 다양한 동·식물을 모티프로 디자인했으며, 실제 탐승도 가능하도록 설계돼 국가정원과 순천 도시를 즐기는 또 다른 이색적인 관람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가정원 개장으로 엿보는 'K-디즈니 순천', 미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 준비

'K-디즈니 순천'은 세계적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즈니'와 같이 지역 스스로가 문화콘텐츠의 창조자인 생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도시 전체를 산업 기지화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수도권에는 동지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는 'K-디즈니 순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순환하게 할 천만 소비군을 유치하고,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선호형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순천만국가정원 리뉴얼은 '정원문화도시'라는 시의 새로운 비전을 선보이는 최적의 수단이다.

별종위계층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뺐고, 차가 아닌 사람을 위해 왕복 4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바뀌게 한 순천의 실례는 이제 도시의 미래를 향하고 있다.

순천의 새로운 시도가 또다시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지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조준익 기자

'곡성물' 벚꽃 시즌 맞아 전품목 10% 할인 기획전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벚꽃 시즌을 맞아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품목 10% 할인' 기획전을 연다. 동시에 배송비 3,0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곡성물'은 현재 100개 업체, 443개 상품이 입점해 있으며, 곡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과 특산물, 가공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다양한 쌀과 잡곡, 깨끗한 환경에서 채취한 자연산 꿀, 섬진강 맑은 물로 키워낸 장어, 곡성 특산물 토란 제품까지 고품질의 상품으로 가득하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벚꽃이 활짝 피는 계절을 맞아 동약산의 깨끗한 공기와 섬진강의 맑은 물로 생산한 곡성군의 우수한 농수산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시-함평군 공직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광양시와 함평군 공직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광양시 홍보소통실, 감사실과 함평군 가족행복과 직원 36명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양 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

함평군은 지난 3월 8일 '제23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에서 'K-문화'를 담아내고 지역 간 공생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시군자 축제 협업을 함께 선포한 도시로 의미가 남다르다.

시군자 축제 협업 시군은 광양매화, 광양매화축제, 담양(대나무, 담양대나무축제), 함평(국화, 대한민국 국화대전), 신안(난, 신안새우만축제) 등이다.

양 도시 공직자들은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상호 축제 홍보, 우수시책 등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곡성어린이도서관, 오는 12일 개관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 조성... 미래형 독서체험 제공



곡성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의 날에 공식 문을 연다.

곡성군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곡성어린이도서관이 오는 12일 도서관의 날에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 56억원(국비 20억원·군비 36억원)이 투입된 곡성어린이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로 조성됐다.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460㎡이며, 1층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위한 어린이도서관과 사무실로 구성됐다.

2층은 가족 자료실과 어린이 프로그래밍, 실감형 동화체험실, 주민 커뮤니티, 다목적실이 설치돼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실감형 동화체험실'은 어린이들에게 미래형 독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이 들어섰다.

또 어린이도서 1만여권과 일반도서 2000권 등 총 1만2000여권을 갖췄으며 인공지능(AI) 도서추천시스템과 셀프대출반납기, 365예약대출기, 모바일 도서관 등이 설치됐다.

곡성군은 12일 열리는 개관 기념식에서는 그림책 미술공연과 샌드아트 공연, 책과 함께 달랠라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을 선보인다.

이어 오는 27일 오후 2시에는 불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키다란손'의 저자 최덕규 그림책 작가가 강연하고 1인극도 진행한다.

/곡성=홍경백 기자

보성차 음료 개발 대회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개최

서울·광주·원주·대구 4개 지역 예선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서 본선 무대

보성군은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맞이하여 보성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을 위한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차 전문가들과 전공 학생, 창의적 음료 제조자들이 보성차를 주재료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음료를 선보이며, 차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는 더욱 확장된 규모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성 티 마스터컵은 보성차를 기본 재료로 3가지 이상의 원·부재료를 혼합(믹싱) 또는 고명(도핑)해 카페용 음료를 개발하는 경연대회로 서울과 광주, 원주, 대구 4개 도시에서 예선을 거쳐 20명의 출품작이 준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펼쳐지며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진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난해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섬·힐링 관광명소 봄꽃에 물들다

도로변 화분 정비 등 나들이객 맞이 분주



고흥군은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내외 화단과 도로변 화분을 정비해 봄의 향기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고 1일 밝혔다.

봄을 알리는 화형색색 화려한 꽃들이 고흥우주발사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고흥에서 섬과 힐링을 찾는 여행객들은 푸른빛과 도로변 화분을 정비해 봄의 향기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월 '2024년 간소형 잠재관 광지'로 선정된 바 있는 고흥우주발

사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관광명소다.

특히 7층 카페에는 360도 회전 테라스가 설치돼 있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남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나로우주센터와는 해상으로 17km 직선 거리에 위치해 누리호 발사 광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원편으로 남해의 용이 승천했다는 용바위까지 4km에 이르는 해안 산책로인 '미르마루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함초롬히 고개를 내미는 들꽃들과도 만날 수 있다"며, "관광객들이 조용하고 한적하게 거닐며 삶의 유희를 켜기 위해 최적의 힐링 코스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고흥=신용원 기자

구례,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호응'

드림스타트 아동 20명 대상 다양한 활동 체험

구례군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힐링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원랜드가 주관하는 2024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승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아동들의 미디어 매체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터득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산림을 통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도전 중독타파, 디톡스 켈리지, 힐링 옥세스

트라 등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과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체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우정을 키우고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복지, 건강, 상담 및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오경범 기자

광양시, 광영공공하수처리장 수처리 효율 증대 노력

수처리 효율 30% 이상 증대 효과 기대

광양시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법적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광양만권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영공공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정밀세정과 여과분리막 교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생물반응조는 수처리의 핵심 시설로, 시는 해마다 약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과분리막 16,800매

정밀세정과 노후화된 부속 자재를 교체해 방류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처리 효율을 30%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 외에도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 여과분리막 세정용 송풍기 케이틀 교체를 포함한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3건을 완료했다.

박순옥 하수처리과장은 "지속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처리로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은 1993년 3월 건립돼 2011년 11월 처리용량 증설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처리구역으로는 옥곡면, 진상면, 광영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1일 7,500톤의 처리용량 대비 평균 4,000톤 이상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광양=조준익 기자